

대구주보

연중 제29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전교 주일
2020. 10. 18. (가해) 제2237호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마태 28,20)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 안토니오 콘치올리, 1791년, 이탈리아 리에티 교구 박물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칠곡가톨릭병원장 | 신홍식 루카 신부

군대와 함께 선교사가 들어간 나라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몰래 들어간 나라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여 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999년에 390만 명이었던 전체 신자수가 2018년에는 580만 명으로 48.6% 증가하였습니다. 해마다 영세자가 10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신자 증가율이 1.0% 대로 떨어졌고, 2018년에는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일미사 참례율도 1999년에 29.5%에서 2018년에는 18.3%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의 한국교회는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신자 증가율도 감소하고, 미사 참례율도 감소하며, 영세자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숫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도 영세를 몇 명이나 주었는가 하는 것만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교회는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인 성장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례를 주는 것에만 치중했고, 영세자들의 삶이 복음화되는 것에는 관심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신앙생활 또한 많은 변화를 맞았습니다. 한동안 미사가 중단되었고 다시 재개되었지만, 예전의 미사 참례자의 절반 정도만 나온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동안 양적인 성장으로 생겨난 거품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A. J. 크로닌의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을 보면, 중국에서 선교하던 프란치스 치섬 신부님은 현실적인 유흥 앞에서 갈등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 큰 재력을 가진 부자에게 세례를 주고 짧은 시간에 양적인 성장을 할 것인가?’ 그러나 치섬 신부님은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을 선택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곳에는 차돌처럼 단단한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모인 튼튼한 신앙공동체가 생겨납니다. 세례를 받고 더 나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의 복음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교는 세례를 주고 복음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19-20) **골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이사 6,8)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초래한 고통과 도전이 올 한 해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예언자의 소명 이야기에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한 그 말씀의 빛이 온 교회의 선교 여정을 비추어 줍니다. 이는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이사 6,8) 하고 질문하신 데에 대한 늘 새로운 응답이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각자 기꺼이 파견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닐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끊임없이 선교 활동에 나서는 사랑, 생명을 주고자 언제나 밖으로 나가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 사랑의 사명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당신의 영광 함께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어 전 세계 민족들에게 선교하도록 보내십니다.

우리 각자의 소명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그 사랑 안에 한 가족이며 형제자매라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을 향한 하느님 사랑의 보편 성사인 교회는 역사 안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으며 우리를 모든 곳으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증언과 복음 선포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지속적으로 당신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며 이러한 방식으로 언제 어느 곳에서나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사회와 문화를 어루만져 변모시켜 주십니다.

선교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유롭고 의식적

인 응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 교회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만, 이러한 부르심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감염증 확산의 시기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교회 사명의 도전 과제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집에 머물러야만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느님과 맺는 공동체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불신과 무관심을 증폭시키는 대신, 우리가 다른 이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과 민족들에게 파견하실 수 있는 이들을 지속적으로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악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기를 하느님께서서는 기대하십니다.(마태 9,35-38; 루카 10,1-12 참조)

또한 전교 주일 거행은, 기도, 묵상, 여러분의 물질적 봉헌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풍요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복음화의 별이시고 근심하는 이의 위안이시며, 당신 아들 예수님의 선교 제자이시니, 언제나 저희를 위하여 전구해 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소서.

프란치스코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원

교구 병원사목부장 | 이태우 프란치스코 신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살고 하느님 앞에 서게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첫째는 ‘네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니?’ 그리고 둘째는 ‘네가 행복했다면 너 주위의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살았니?’

이 두 가지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또한 지금 우리의 삶을 성찰해볼 수 있는 깊이 있는 물음이라 여겨집니다. 특별히 제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우분들을 만날 때면 더욱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 할아버지와 가족들과의 사별 여정이 떠오릅니다. 요셉 할아버지께서는 80대 초반에 말기암으로 호스피스 병실에서 생의 마지막 여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몸 상태가 매우 나빠져서 병자 성사를 요청하게 되었고 저는 성사를 집전하러 병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사를 드리기 이전에 이미 요셉 할아버지와는 계속해서 만남을 가져왔었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과의 대화와 만남을 가지면서 그분의 인격적인 성숙은 물론이고 신앙인으로서의 깊이와 믿음에 대한 확고한 모습은 방문할 때마다 참으로 귀감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섰을 때, 병실에는 요셉 할아버지 주위로 가족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만하거나 부산스럽지 않고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가운데 가족들은 조용하게 흐느끼거나 기도하

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요셉 할아버지에게 병자 성사를 집전하고 가족들에게 요셉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미처 못했던 말이 있으면 지금 하시라고 권유를 드렸습니다. 가족분들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주로 했으며 더러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사랑한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던 중에 요셉 할아버지께서는 “신부님,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저의 마지막을 함께해주고 사랑한다는 말까지 들으니까요...감사합니다...신부님...하느님...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가족들의 파스한 배웅 속에서 선종하셨습니다.

가족분들은 저마다 정말 파스하고 좋은 분이셨다고...아버님과의 사별은 너무 안타깝지만 아버님을 생각하면 항상 고맙고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는 요셉 할아버지와 가족들과의 사별 여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곧 새로운 소원이자 마지막 소원이기도 한 내 인생의 마지막은 요셉 할아버지처럼 맞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임종을 앞둔 분들과 가족분들의 사별 여정을 경험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두 가지 질문 - ‘너는 얼마나 행복했니? 행복했다면 주위의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었니? - 과 더불어 또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과 나뉘볼까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다가올 인생의 마지막 소원...그 소원은 어떤 것이 되면 좋을까요? **필문**



최창현 요한 (1759~1801년)

최창현(崔昌顯) 요한은 1759년 한양의 역관 집안에서 태어나 입정동에서 살았다. 호는 '관천'이었으며, 1795년에 순교한 최인길 마티아가 그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집안 아저씨뻘이 된다.

1784년 겨울,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직후에 교리를 배워 입교한 요한은 글을 잘 알아 한문으로 된 교회 서적을 조선말로 번역하는 데 열중하였다. 이때 그가 번역한 책들은 한문을 모르는 신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평온한 마음과 조심스러운 행동을 지녔으며, 모든 일을 부지런하면서도 공정하게 처리하였다.

요한은 그 후 지도층 신자들에 의해 총회장 역할을 하도록 추대되었다. 그는 언제나 교우들이 타당하게 교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쳤고, 교회 일을 열심히 도왔다. 특히 그의 교리 강론은 유명하였으며, 덕망도 뛰어나 모든 교우들이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게 되었다.

1791년의 신해박해 이후 일부 지도층 신자들이 교회를 멀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만은 곳곳하게 교회를 지켜나갔다. 그는 동료들과 의논하여 성직자를 영입할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이 일을 앞장서서 추진하였다.

1794년 말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조선에 입국한 뒤 요한은 정식으로 회장에 임명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그는 주 신부가 집전하는 미사에 참석하고 그로부터 성사를 받았으며, 언제나 미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였다. 또 그는 동료들과 함께 교리를 연구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데도 노력하였다.

1801년의 신유박해가 일어난 직후, 최창현 요한은 다른 교우의 집으로 잠시 피신하였다. 그러나 병 때문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가 밀고자가 데리고 온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천주교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어 있었으므로 상급 재판소인 의금부로 끌려가 문초를 받게 된 요한은 일시 마음이 약해져 처음에는 용감하게 신앙을 증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교회의 일을 밀고하지는 않았다.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그는 여러 차례 혹독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는데, 형벌 가운데서 다시 용맹한 마음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내 그는 전날의 약했던 마음을 진실히 뉘우쳤고, 용감하게 신앙을 고백하였다.

“저로서는 지목하여 말할 교우가 없으니 죽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이제 천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날에 천주를 배반하였던 것을 통절히 뉘우치면서 죽고자 할 따름입니다. 지목하여 말할 교우는 없습니다.”

최창현 요한은 끝으로 '자신이 천주교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런 다음 동료들과 함께 서소문 밖으로 끌려 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01년 4월 8일(음력 2월 26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42세였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이사 2,1-5	제 2 독 서	로마 10,9-18	복 음	마태 28,16-20.
화 답 송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산골(散骨)에 관한 질의응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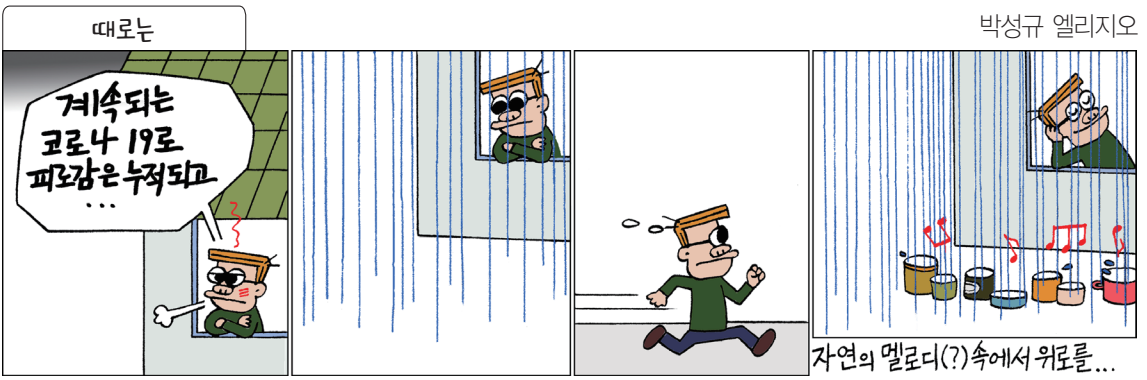
교회가 산골을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지만 부활 때에 하느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썩지 않는 생명을 주시며, 이 육신은 우리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변모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따라서 **부활할 육신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기 위하여 산골을 금지합니다.**

그리스도교 장례는 부활에 대한 교회의 믿음을 확인시키고, 인간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인 인간 육신의 커다란 존엄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교회는 “죽음에 관한 잘못된 생각, 곧 죽음을 인간의 완전한 소멸, 자연이나 우주와 융합되는 순간, 윤회의 한 단계, 육체의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으로 여기는 그릇된 사상들과 관련된 태도를 용납하거나 그러한 예식을 허용할 수 없다.”(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3항)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생적,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도 ‘산골’하거나 ‘유골을 기념물이나 장신구 또는 다른 물건에 넣어 보관하려는 시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형태의 범신론이나 자연주의나 허무주의의 모습을 피하고자 합니다.(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7항 참조)

산골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 이미 산골을 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한 산골은 무지와 착오에 따른 것일 뿐 자신의 양심을 거슬러 자유 의지로 행한 잘못과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산골을 후회하며 고인을 기억하기를 원한다면, 기일에 고인을 위한 지향으로 위령 미사(연미사)를 봉헌하고 위령 기도(연도)를 드리면 됩니다.



미사 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0월 19일(월) 10:30 범여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9일(월) 11:00 죽도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0월 19일(월) 11:00 평화성당	한티순교자 현양후원회 월례미사	10월 24일(토) 11:00 순례자성당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9일(월) 11:00 계산성당	-	-

성소 | 피정

돈보스코여자재속회 성소 모임

일시: 수시 문의

대상: 세상 안에서 축성생활을
원하는 미혼 여성

문의: (0507)1306-1505

<http://isvdb.creatorlink.net>

예수고난회 성소 모임

일시: 11.7(토) 18:00~8(일) 11:00

장소: 서울 돈암동 수도원

문의: (010)6804-4904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마르코 통독 피정

일시: 10.25(일) 10:00~17:00

장소: 바틀로교육센터(파동)

대상: 미혼 여성

문의: (010)9861-6691

바오로딸 온라인 7일 피정(1단계)

일시: 10.25(일)~31(토)

목적: 일상 속 하느님과과의 만남

대상: 청년·일반 30명 / 비용: 1만 5천원

방법: 네이버 밴드

신청: 이크레센시아 수녀, (010)2047-1610

성주 평화계곡피정의집 11월 향심기도 피정

1박 2일: 10.31~11.1 / 11.7~8(기초)

2박 3일: 11.13~15(기초) / 11.27~29(심화)

대상: 기도를 배우고 싶으신 분(10명 선착순)

문의: 예수성심시녀회, (010)3422-7587

제주 면형의집 피정

수도회 수사와 제주성지·평화·역사

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오름트레킹

일시: 10.31~11.2 / 11.11~13

11.22~25 / 12.5~7 / 12.11~13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행사 | 모임

10월 예비신학생 모임(고3·대학일반)

일시: 10.25(일) 14:0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전례꽃꽂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10.19(월) 1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문의: (010)2780-4535

교육 | 모집 | 기타

가르멜재속회 자원자 모집

마감: 1월 모임 전 / 대상: 55세 이하

첫째주 일요일탐: (010)3308-1004

첫째주 월요일탐: (010)4525-2467

넷째주 일요일탐: (010)6549-1852

넷째주 월요일탐: (010)3532-7337

카리타스가정폭력상담소 다음 안내

내용: 가정폭력, 부부갈등, 심리상담

방법: 전화 및 사이버, 내방상담(무료)

문의: 253-1405~6

<http://www.with1401.or.kr>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제주 성지순례 3일

일시: 10.30~11.1 / 11.13~15 / 11.23~25

장소: 제주성지 7곳(신부님 성지해설)

주최: 서울대교구 가톨릭사회경제연합

문의: (064)805-9890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신청: 수시 가능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문의: (031)360-7635 / (010)7470-7966

경일신경과·내과의원

- 뇌졸중(중풍)·치매 조기진단
-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
- 영상의학 - MRI, CT, 초음파

대표전화 053) 652-2525
내당역 2번출구(홀플러스 내당점 맞은편)

원룸,투룸 용달이사

한역기(바오로)
010-3514-3855

수성구 761-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북 구 313-2484

36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보조금 지원 무료 보청기
053)257-8500 / 253-7476

방인수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곽병원 사이 지하도 입구

리스토리결혼정보

국내 / 국제 결혼 전문
안동 MBC, 아시아뉴스통신 방송 다수출연

21년 전통 ♥ 성혼시까지 맞선
대표 이현숙 수신나 (교육학 박사)
M. 010.6571.3385
T. 053.586.3220

윤영희 성령외과

서울대학교 병원 협력병원

성령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원장 윤영희 바오로

수성구 어린이회관 맞은 편(3호선 어린이회관역)
T. 053)766-2454 / 2455

우보한의원

백반증 | 아토피 | 두드러기 | 건선
지루성피부염 | 기타피부질환 | 비염

대구시 중구 명덕로 193 코스모스빌딩 7층
원장 박재영(루카) 실장 김소영(유스티나)
TEL. 053)427-8080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성요셉요양병원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수맥홍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中
☎1588-5335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소세덕(히포리토) 신부
1921년 10월 21일

교육 | 모집

11월 가나 강좌

일시: 11.8(일) 10:00~13:30(시간엄수)
장소: 교구청 내 교육원 다동 대강당
참가비: 2인 3만원(사전 신청) 무료주차
신청: 본당 사무실 / 마감: 10.29(목)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2021학년도 백합어린이집 입학 설명회

코로나19 확산으로 소그룹으로 진행하니 입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어린이집으로 문의 후 일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10.12(월)~23(금) 10:30~11:30
14:00~15:00 / 문의: 256-6862

2021학년도 평리유치원 입학 설명회

설명회: 10.23(금) 10:30(1차), 14:00(2차)
대상: 2015.1.1~2017.12.31 출생유아
모집: 11.2(월)부터 온라인_처음학교로 방문신청_유치원
문의: 555-2021

대건고 2021학년도 입학 설명회

일시: 10.24(토) 14:00
장소: 대건고등학교
문의: 입학홍보실, 235-4560

기회균등전형(국민기초, 차상위 등)
입학 시 전원 장학금 지급, 기숙사비 등 학비 지원

2021학년도 동명어린이집 입학 설명회

코로나19 확산 예방으로 소규모로 진행하니 접수 후 상담일정 안내드립니다.
접수: 11.2(월)~6(금)
상담: 11.9(월)~13(금)
문의: (010)3976-6857

2021 전기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접수: 11.2(월)~13(금)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문의: 850-3582(일반), 850-3508(교육), 660-5252~4(특수)
<http://www.cu.ac.kr>

2021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전기 신입생 모집

접수: 11.2(월)~13(금) 17:00
전형: 11.30(월) 14:00(석사과정)
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문의: (02)2258-7076, 7107

대구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발성과 합창: 월, 목 14:00 / 19:00
대구CEO합창단: 화 14:00 / 19:30
장소: 대가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문의: (010)3512-1565

임시 정원 5명 소그룹수업(기초이론검)
전인병원 갤러리 전시 작가 모집
문의: 670-5882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모집

난타·고전무용·장구, 성가반주오르간, 꽃차, 색소폰, 연필초상화, 제대꽃꽂이, 오카리나, 서양화, 사범자격과정꽃꽂이, 발성법, 가곡성가, 섬유공예, 우쿨렐레, 정리수납전문가과정 / 신청: 254-6115

채용 | 안내

학교법인선목학원 교원 채용

(1차 시험 교육청 위탁)
접수: 10.19(월)~23(금)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등은 선목학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dgsunmok.or.kr>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간호사 채용
위치: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440(읍내동)
문의: 간호과, 320-2750
<http://www.tcmch.co.kr>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이서영(시몬), 박근필, 박현정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일월매트총판 | 온수매트
한일 의료기 | 게르마늄매트
소금좌욕기 | 전자제품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010-9804-8008
유통단지로 45 전자관 1층 239호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율리안나)
배대욱(임마누엘)
☎ (053)255-9077
010-9447-5193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관절통, 스포츠 통증
프롤로 재생 주사, 도수 치료
통증의학전문: 원장 정순우(요셉)
범어네거리 두산위브더제니스상가 3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8번 출구)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상운(안젤로)
송정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공장직영도매(동고령IC)
삼우싱크
이웅해(스테파노) 박현미(마리아)
전시장: 대구 용산점, 칠곡 구암점
싱크, 불박이, 신발장, 각종수납장 인테리어 및 주택수리
010-2866-0277 | 010-3336-9567

칠곡속내과
CHIL-GOK SOK INTERNAL MEDICINE
위·대장내시경, 용종절제술
만성질환클리닉, 성인예방접종
원장 이정수(요한) T. (053)327-0300
대구 3호선 팔거역 4번 출구

잘보는 안과
DAEGU PREMIER EYE CENTER
문홍재(요한) · 이정호 · 구원모
이태운(미카엘) · 김진선 · 이혜미
효성병원 맞은편 1~4층
잘보는안과 빌딩
☎ 053 766 4455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서준영(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진료분야: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정신질환